

회관 개관10주년 기념 특별공연

『혈맥 血脈』

* 공연개요

- ◆ 공연일시 : 2004. 4. 3(토)~11(일) 평일 19:30 / 토요일 16:00, 19:30 / 일요일 16:00
- ◆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 관람인원 : 3,595명



‘혈맥(血脈) 中’

* 작품내용

제1막

광복 직후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전쟁 때 파놓은 방공호에 살고 있다. 이시기에 많은 집과 방공호까지도 자기 명의로 신고해 부자가 된 강가는 방공호에 사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내라고 다그친다. 복덕방 털보는 절대 줄수 없다며 문패를 만들어 방공호 앞에 달려고 한다. 돈을 벌기 위해 털보는 아들 거북을 미군 부대에 넣으려 하고 옥매는 딸 복순을 기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거북과 복순은 방공호를 떠나 영등포 약공장의 직공이 되려고 한다. 백옥희는 양공주가 되어 미군술집에 다니고 있고 원팔은 병든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며 담배장사를 하고 있다. 일본 유학을 한 원팔이 동생 원칠은 가난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불만이 많아 일도 안하고 매일 형과 다투고 중매장수 털보를 찾아와 좋은 여자가 있으니 새장가 들라고 한다.

제2막

원팔의 아내는 병이 더욱 악화되고 원철은 형과 더욱 사이가 나빠진다. 갑득은 복순의 아버지에게 술을 사주면서 딸과 결혼을 다짐받으나 다음날 복순과 거북은 도망친다. 백옥희는 원철에게 간밤의 파티를 자랑하며 술집에 놀러오라고 말하지만 원철은 굶주리는 이곳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며 옥희의 말을 무시한다. 털보는 중매쟁이가 소개해준 청진계집을 데리고 방공호로 들어간다.

제3막 1장

도망간 아들 딸 때문에 털보와 옥매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크게 싸운다. 그러는 중에도 청진계집은 밥만 먹고 있다. 원철은 막노동판에서 번 돈으로 형수가 먹고 싶다는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오지만 원팔은 원철에게 나가라고 하며 통조림을 내던진다.

제3막 2장

원팔의 아내는 병으로 죽게 되고 갑득은 시체를 옮길 리어카를 찾으러 간다. 청진계집이 털보의 전대를 훔쳐 달아나자 털보는 중매쟁이를 찾아가 서로 한패라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털보는 돈을 참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나 깡통영감이 때마침 들어가 살려낸다. 원철은 노동판에서 다친 몸으로 통조림을 사서 방공호로 찾아오지만 형수는 이미 죽어있었다. 원팔과 원철이 화해를 하고 마을사람 모두가 리어카 상여를 함께 끌며 나간다.



‘혈맥(血脈) 中’

* 주요스텝

- | | | |
|---------------|---------------|---------------|
| ◆ 작 : 김영수 | ◆ 연출 : 정 진 | ◆ 조연출 : 손경희 |
| ◆ 무대디자인 : 전성중 | ◆ 의상디자인 : 손진숙 | ◆ 소품디자인 : 전성중 |
| ◆ 조명디자인 : 나한수 | ◆ 음 향 : 한 철 | ◆ 분 장 : 박영화 |
| ◆ 사 진 : 유재형 | ◆ 기 획 : 김금식 | ◆ 진 행 : 이옥희 |

<극장스텝>

- | | |
|---------------|---------------------|
| ◆ 총무대감독 : 최성국 | ◆ 조 명 : 이나구 방승준 이일춘 |
| ◆ 음 향 : 이복행 | ◆ 무대기계 : 나명용 |

제37회 정기공연 『위선자 따르뛰프』

* 공연개요

- ◆ 공연일시 : 2004. 12. 17(금)~26(일) 평일 19:00 / 토요일 · 일요일 16:00
- ◆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 관람인원 : 4,213명



‘위선자 따르뛰프 中’

* 작품내용

<위선자 따르뛰프>는 몰리에르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작품이다. 1664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초연되었으나 파렴치한 작품이라는 비난 속에 공연이 금지됐다.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3년 뒤에 <위선자>라는 제목으로 재연했지만 역시 공연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후 5막으로 개작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위선자 따르뛰프>는 몰리에르 생전에 77회가 공연되었고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1968년까지 무려 2천7백회가 넘는 공연이 이루어졌다.

<위선자 따르뛰프>는 당시 파리를 활보했던 위선자들을 풍자한 작품으로 인간의 악덕과 사회의 악습을 진지하고 대담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거듭된 공연금지는 당시 기득권 세력인 귀족이나 부유층의 위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맞섰기 때문이다.

- ◆ 엘미르 : 조윤경 ◆ 따르뫼프 : 차광영 ◆ 빼르넬르 : 조용선
- ◆ 다미스 : 이범우 ◆ 마리안느 : 강주희 ◆ 끌레앙뜨 : 이필훈
- ◆ 알강뜨르 : 정남철 ◆ 발레르 : 김현준 ◆ 사관 : 문용철
- ◆ 르와이얄 : 서국현 ◆ 로랑 : 김세경 ◆ 도린느 : 정순미
- ◆ 프리쁘트 : 최지연 ◆ 부하 : 정중현 이길수 박현수 백광순
- ◆ 마임 : 김원범 임홍식 심영민 송정화 강성숙 김문정

* 작가소개

몰리에르는 예명이고 본명은 장 바티스트 포클랭. 1622년 왕궁의 전속 실내장식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비교적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파리의 명문 클레르몽 학원에서 라틴어를 대학과정에서는 법학을 공부했다. 원래는 가업을 이어 실내 장식가가 되기로 약속했으나 스물 한 살의 나이에 극단을 만들어 연극에 몸을 담았다.

몰리에르는 1643에 '성명 극단'을 만들어 연극 무대의 일선에서 파란 많은 지방순회공연을 시작하였으나 실패만 되풀이했다. 창단 13년 후 파리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루앙 공연에서 루이 14세의 동생 필립 도를레앙 공이 그의 진가를 인정하여 그에게 원조의 손길을 뻗치는데 이때부터 성명극단은 황제 전하의 극단으로 이름을 떨치고 파리로 입성한다.

국왕인 루이 14세 또한 몰리에르의 독특한 희극적 요소를 매우 좋아하여 <덤벙거리는 사나이>와 <사랑의 원한>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재치를 뿜내는 아가씨들>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루이 14세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성공을 거듭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시기, 질투, 악의에 찬 공격이 몰리에르에게 밀려들었다. 그의 대작 <위선자 따르뫼프>와 <동 주앙>은 상연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파리에서의 인기와 영광은 확고해졌지만 배우이며 연출가, 흥행주의자 작가인 몰리에르의 육체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또한 불행한 결혼생활은 몰리에르에게 고통스러운 삶의 투쟁이 되고 말았다. 그럴수록 더욱더 연극에 정열을 쏟았지만 그의 마지막 걸작 <상상으로 아픈 사나이>공연을 끝마치고 치명적인 각혈로 쓰러지고 만다. 그때가 1673년 2월이었다.

* 공연평

김창화

(상명대 연극학과 교수 / 연극평론가)

17세기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했던 위선자들을 풍자한 몰리에르의 희극 ‘위선자 따르뛰프’가 인천 시립극단 예술감독이자 상임 연출자인 정진씨에 의해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보기힘든 고전 희극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공연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배우 권성덕이 객원으로 출연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서민 재벌 오르공 역을 맡은 권성덕의 열연은 연말을 맞은 인천 시민들을 위한 ‘뜻깊은 선물’이 되었다.

1664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위선자 따르뛰프’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희극작가 몰리에르의 작품 가운데 초기에는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두 차례에 걸친 개작으로 가장 심오하고도 위대한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그러나 무대위에 올리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품에 당연히 권성덕이 ‘따르뛰프’ 역을 맡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공연장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오르공’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 ‘마리안느’와 전재산을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성직자 ‘따르뛰프’에게 주려했으나 ‘오르공’의 젊은 후처 ‘엘미르’를 유혹하려는 ‘따르뛰프’의 흥계가 드러나면서 급격한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몰리에르의 희극은 잘 훈련된 배우의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인천시립극단의 이번공연은 1990년 창단되어 지금까지 37회의 정기공연을 통해 갈고 다듬어온 배우들의 앙상블과 정진 감독의 역량, 권성덕의 객원출연이라는 삼박자가 아주 잘 들어맞아 진정한 의미로 인천시민을 위한 공연이 되었다. 객원 출연자인 권성덕의 연기력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으며 함께 무대를 가득 채운 인천 시립극단 배우들의 앙상블 또한 뛰어났다.

동시에 기본적인 연극의 문법인 배우들의 연기가 제대로 짜여졌다는 것이다. 1965년부터 왕성하게 활동해온 권성덕의 후광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번 공연의 성공적인 결실은 배우를 잘 알고 동시에 작품에 대한 지적인 욕구와 연극적 형상화에 용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인천 시립극단 정진 예술감독의 숨은 공로와 헌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



‘위선자 따르뛰프 中’

▶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4건/45회			19,859명
2004. 4. 3~11 소공연장	회관 개관10주년기념 특별공연 “혈 맥”	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운경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 조상건 봉원웅 강상규 조문의 오민휘 지성근 이강덕 이 현 구선모 손승희 (객원) 정 진 (예술감독/연출) 손경희 (조연출) 김금식 (기획,단무장) 이옥희 (기획) 전성중 (무대미술) 손진숙 (의상) 박영화 (분장) 유재형 (사진) 한 철 (음악,음향) 나한수 (조명디자인) 송정화 (목소리)	해방 직후인 1947년 이른 여름, 서울의 외곽지대인 성북동의 방공호를 배경으로 밀바다 인생들의 시대적 비애를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이다. 땀쟁이, 복덕방 거간, 목관담배장수, 댄서, 지계꾼, 양젓물 장수, 중매쟁이, 막노동꾼 등 궁핍한 현실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다른 한편으로 부자와 거간꾼의 교활한 삶의 방식이 교차되면서 낡은 터전을 바꾸어나가려는 서민들의 의지를 표현한 사실주의 작품이다.	3,595명
2004. 6. 4~12 소공연장	제36회 정기공연 바다가 있는 풍경	이필훈 조운경 강주희 김현준 정순미 김문정 (상임) 김혜진 호효훈 (객원) 정 진 (예술감독) 손경희 (연출) 엄태경 (번안) 김금식 (기획,단무장) 이옥희 (기획) 김효선 (무대·의상디자인) 김의중 (조명디자인) 박영화 (분장) 이병복 (작곡,음향) 조남연 (무대제작) 장성학 (의상제작) 임춘만 (사진) 송정화 (기획보)	닐 사이먼의 원작 ‘브라이트 해변의 추억’을 바다가 있는 인천을 배경으로 번안하여 가족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모부를 잃은 이모네 세 식구와 함께 사는 상우네 네 식구의 한 지붕 두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소년(상우)의 성장기를 통해 가족의 정체성을 따뜻하게 살려냈다.	3,714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4. 9. 3~12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거짓말하는 여인	서국현 차광영 송정화 정순미 최지연 (상임) 장경섭 (객원) 정진 (예술감독) 김금식 (기획, 단무장) 고동희, 이우희 (기획) 이재상 (각색, 연출) 장경섭 (조연출) 이상수 (무대디자인) 박영화 (분장디자인) 이병복 (음향디자인) 박석광 (조명디자인) 송원호 (사진) 최종욱 (무대감독) 최성민 (음향)	한 여인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린 희극이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무수한 거짓말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이지만 결코 거짓말하는 여인이 밟지 않다. 오히려 그녀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이 유쾌한 카타르시스를 전해준다.	1,028명
2004. 12. 16~26 소공연장	제37회 정기공연 위선자 따르뛰프	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운경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 권성덕 김원범 정종현 이길수 박현수 백광순 (객원) 정진 (예술감독/연출) 손경희 (조연출) 김금식 (기획, 단무장) 고동희, 이우희 (기획) 정철환 (무대조감독) 전성중 (무대디자인) 손진숙 (의상) 박영화 (분장) 송원호 (사진) 이병복 (작곡, 음향디자인) 김의중 (조명디자인) 황정욱 (특수효과)	17세기 파리를 활보했던 위선자들을 풍자한 이 작품은 몰리에르의 대표작이자, 발표 당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작품이다. 기득권 세력인 귀족이나 부유층의 위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그들의 허구를 화려한 문체를 통해 통렬하게 풍자했다. 맹목적인 숭배와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 무조건적인 비판자, 방관자 등의 군상들이 엮힌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자기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4,213명

▶ 정기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3건/36회			11,522명
2004. 4. 3~11 소공연장	회관 개관10주년기념 특별공연 “혈 맥”	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운경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 조상건 봉원웅 강상규 조문의 오민휘 지성근 이강덕 이 현 구선모 손승희 (객원) 정 진 (예술감독/연출) 손경희 (조연출) 김금식 (기획,단무장) 이옥희 (기획) 전성중 (무대미술) 손진숙 (의상) 박영화 (분장) 유재형 (사진) 한 철 (음악,음향) 나한수 (조명디자인) 송정화 (목소리)	해방 직후인 1947년 이른 여름, 서울의 외곽지대인 성북동의 방공 호를 배경으로 밀바닥 인생들의 시 대적 비애를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 이다. 땀쟁이, 복덕방 거간, 목판담배 장수, 댄서, 지계꾼, 양땀물 장수, 중매쟁이, 막노동꾼 등 궁핍한 현 실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다른 한편으로 부자 와 거간꾼의 교활한 삶의 방식이 교차되면서 낡은 터전을 바꾸어나 가려는 서민들의 의지를 표현한 사 실주의 작품이다.	3,595명
2004. 6. 4~12 소공연장	제36회 정기공연 바다가 있는 풍경	이필훈 조운경 강주희 김현준 정순미 김문정 (상임) 김혜진 호효훈 (객원) 정 진 (예술감독) 손경희 (연출) 엄태경 (번안) 김금식 (기획,단무장) 이옥희 (기획) 김효선 (무대·의상디자인) 김의중 (조명디자인) 박영화 (분장) 이병복 (작곡,음향) 조남연 (무대제작) 장성학 (의상제작) 임춘만 (사진) 송정화 (기획보)	닐 사이먼의 원작 ‘브라이트 해 변의 추억’을 바다가 있는 인천을 배경으로 번안하여 가족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모부를 잃은 이모네 세 식구와 함께 사는 상우네 네 식구의 한 지 붕 두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소년(상우)의 성장기를 통해 가족의 정체성을 따뜻하게 살 려냈다.	3,714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4. 12. 16~26 소공연장	제37회 정기공연 위선자 따르뛰프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운경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 권성덕 김원범 정종현 이길수 박현수 백광순 (객원)</p> <p>정진 (예술감독/연출) 손경희 (조연출) 김금식 (기획,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 (기획) 정철환 (무대조감독) 전성중 (무대디자인) 손진숙 (의상) 박영화 (분장) 송원호 (사진) 이병복 (작곡, 음향디자인) 김의중 (조명디자인) 황정옥 (특수효과)</p>	<p>17세기 파리를 활보했던 위선자들을 풍자한 이 작품은 몰리에르의 대표작이자, 발표 당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작품이다.</p> <p>기득권 세력인 귀족이나 부유층의 위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그들의 허구를 화려한 문체를 통해 통렬하게 풍자했다.</p> <p>맹목적인 숭배와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 무조건적인 비판자, 방관자 등의 군상들이 엮힌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자기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p>	4,213명

▶ 기획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1건/9회			1,028명
2004. 9. 3~12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거짓말하는 여인	서국현 차광영 송정화 정순미 최지연 (상임) 장경섭 (객원) 정진 (예술감독) 김금식 (기획,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 (기획) 이재상 (각색, 연출) 장경섭 (조연출) 이상수 (무대디자인) 박영화 (분장디자인) 이병복 (음향디자인) 박석광 (조명디자인) 송원호 (사진) 최중욱 (무대감독) 최성민 (음향)	한 여인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린 희극이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무수한 거짓말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이지만 결국 거짓말하는 여인이 밉지 않다. 오히려 그녀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이 유쾌한 카타르시스를 전해준다.	1,028명

▶ 청소년을 위한 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3건/9회			4,789명
2004. 4. 3~11 소공연장	혈 맥	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운경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 조상건 봉원웅 강상규 조문의 오민휘 지성근 이강덕 이 현 구선모 손승희 (객원) 정 진 (예술감독/연출) 손경희 (조연출) 김금식 (기획,단무장) 이옥희 (기획) 전성중 (무대미술) 손진숙 (의상) 박영화 (분장) 유재형 (사진) 한 철 (음악,음향) 나한수 (조명디자인) 송정화 (목소리)	해방 직후인 1947년 이른 여름, 서울의 외곽지대인 성북동의 방공 호를 배경으로 밀바닥 인생들의 시 대적 비애를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 이다. 땀쟁이, 복덕방 거간, 목관담배 장수, 댄서, 지계꾼, 양뿔물 장수, 중매쟁이, 막노동꾼 등 궁핍한 현 실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다른 한편으로 부자 와 거간꾼의 교활한 삶의 방식이 교차되면서 낡은 터전을 바꾸어나 가려는 서민들의 의지를 표현한 사 실주의 작품이다.	1,383명
2004. 6. 4~12 소공연장	바다가 있는 풍경	이필훈 조운경 강주희 김현준 정순미 김문정 (상임) 김혜진 호효훈 (객원) 정 진 (예술감독) 손경희 (연출) 엄태경 (번안) 김금식 (기획,단무장) 이옥희 (기획) 김효선 (무대·의상디자인) 김의중 (조명디자인) 박영화 (분장) 이병복 (작곡,음향) 조남연 (무대제작) 장성학 (의상제작) 임춘만 (사진) 송정화 (기획보)	닐 사이먼의 원작 '브라이트 해 변의 추억'을 바다가 있는 인천을 배경으로 번안하여 가족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모부를 잃은 이모네 세 식구와 함께 사는 상우네 네 식구의 한 지 붕 두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소년(상우)의 성장기를 통해 가족의 정체성을 따뜻하게 살 려냈다.	1,667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4. 12. 16~26 소공연장	위선자 따르튀프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운경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상임) 권성덕 김원범 정종현 이길수 박현수 백광순 (객원)</p> <p>정진 (예술감독/연출) 손경희 (조연출) 김금식 (기획, 단무장) 고동희, 이욱희 (기획) 정철환 (무대조감독) 전성중 (무대디자인) 손진숙 (의상) 박영화 (분장) 송원호 (사진) 이병복 (작곡, 음향디자인) 김의중 (조명디자인) 황정옥 (특수효과)</p>	<p>17세기 파리를 활보했던 위선자들을 풍자한 이 작품은 몰리에르의 대표작이자, 발표 당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작품이다.</p> <p>기득권 세력인 귀족이나 부유층의 위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그들의 허구를 화려한 문체를 통해 통렬하게 풍자했다.</p> <p>맹목적인 숭배와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 무조건적인 비판자, 방관자 등의 군상들이 엮힌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자기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p>	1,739명

▶ 2005년 극단 공연 계획

연번	일시	장소	공연명	비고
	계			
1	2005. 4. 8~17	소공연장	정기공연 “산 불”	
2	2005. 6. 16~26	수봉문화회관	정기공연 “타스마니아”	
3	2005. 8. 13~21	소공연장	특별공연 “아리랑”	
4	2005. 12. 9~18	소공연장	단막극 공연 “가을소나타”	

시립극단 단원명단

예술감독 : 정 진

조 연 출 : 손경희

단 무 장 : 김금식

사 무 : 이옥희, 고동희

제1차석 : 김세경

제2차석 : 차광영

상임단원 : 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심영민,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